

# 한국 현대패션에서의 한국적 디자인 전개과정 분석과 세계화를 위한 제안

김 찬 주 · 장 인 우\*

인천대학교 의생활학과 부교수 · 인천대학교 의생활학과 교수\*

## Suggestions for Globaliz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ocess of Korean Design Development in Modern Korean Fashion

Chan-Ju Kim · In-Woo Ja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University of Incheon  
Dept. of Clothing & Textiles, University of Incheon

### ABSTRACT

The globalization of Korean beauty comes partly from the succession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its modernization will be the one of very important issues in 21st century. This paper was done in order to analyze the process of Korean design development in modern Korean fashion in terms of the succession and modernization of Korean traditional beauty and, based on this analysis, also suggest new possibilities for successful globalization of Korean fashion in 21st century. 227 fashion designs which represent typical elements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were selected from fashion magazines, books, SFAA collection books, and company brochures published from 1986 to 1997. Content analysis was used with 8 variables including 7 design elements(line, shape, color, textile, motif, detail, accessories) and year. Results of analysis showed that the process of Korean Design development in modern Korean fashion has been directed in 3 major trends: simplification, diversity and folklore. Simplification had occurred mainly in the use of straight lines and simple silhouettes. Diversity could be found in the application of various kinds of outwear items as well as in the variety of materials and details. Symbolic traditional motifs and accessories were used to enliven the Korean folklore image. These trends became more salient with the turning point of 1993 when a few designers began to participate in Paris Collection. For successful globalization, designers should have more active attitudes toward exploiting the essence of Korean beauty and developing them as modern and global styles.

Key Word · 현대패션, 한국적 디자인 개발, 세계화

## I. 서 언

오늘날 세계 각 국에서는 문화와 생활양식이 범세계적으로 일원화되어 가는 가운데 자신의 전통과 고유문화를 유지·발전하려는 움직임이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이름 하에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짧은 기간동안 이루어진 경제발전은 사람들의 사고와 생활양식을 비롯하여 문화와 산업전반에 걸쳐 급속도로 서구화를 가져와 정체성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과 전통에 대하여 확인하려는 시도들이 80년대 후반 들어 문화와 생활 각 분야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통문화 확인에의 시도는 산업차원에서는 패션산업이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패션산업의 경우 '80년대 후반이래 수입자유화라는 시장환경속에서 디자이너들은 한국패션의 새로운 도전과 방향제시를 위해 한국적인 전통의 미를 살려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과거 한국복식에서 발견되는 전통적인 디자인요소들을 현대패션에 적용하는 등 한국적 디자인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93년 봄부터 시작된 일부 디자이너들의 해외콜렉션진출은 한국적 미를 세계화시키려는 디자이너들의 꿈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내외적으로 패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한국적 디자인 개발과 전개를 위한 패션산업계의 적극적 노력과 함께 학계에서도 80년대 말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최근 한국적 디자인 개발과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문영희, 1986: 이미혜, 1988: 김문자, 1990: 김민자, 1990: 남숙현, 1992: 금기숙, 1992: 최세완과 김민자, 1993: 김인경, 1995: 조희래와 김영인, 1996: 임영자, 1996: 강희경, 1998). 이들 선행연구들의 대다수는 한국의 현대패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적 디자인 전개과정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주로 디자이너들이 발표한 의상디자인에 한국적 전통미가 어떻게 응용되었는가를 분석하거나 소재나 문양과

같이 전통미를 이루는 한 두 가지 요소를 현대적으로 응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주로 1985년에서 1991년까지 발표된 의상디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의 디자인경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나아가 이들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시각에서 한국적 디자인의 전개과정을 조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최세완과 김민자(1993)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선행연구가 질적 분석에 의지하였으므로 수량화하여 한국적 디자인 개발작업분석에 객관성을 부여할 필요성도 크다.

21세기를 앞두고 한국 현대패션에서 앞으로 한국적 디자인 개발작업의 세계화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적인 디자인'에 관심이 일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부터 1997년까지 발표된 한국적 의상디자인들을 대상으로 시기별로 내용분석하여 패션에서의 한국적 디자인 개발작업이 전개되어온 과정을 살펴보고 그 결과에 기초해 앞으로 한국 현대패션에서 한국적 디자인의 세계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세계화를 위한 제안을 보다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디자인을 가지고 세계시장에 진출한 경험이 있는 디자이너의 의견과 미래 소비자나 패션경향의 변화를 아는 것이 중요하므로 디자이너에 대한 심층면접과 다양한 관점의 패션정보지와 패션잡지 등 관련문헌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기대되는 결과로서 한국패션의 세계진출의 토대를 마련한 1993년 이래의 해외 유명컬렉션참가가 패션에서의 한국적 디자인 전개과정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II. 한국적 디자인 전개과정 분석

### 1. 시대적 배경

현대에 있어 '한국적'이라는 개념은 고정된 개념

이 아니라 역사성을 지닌다. 다시 말해 '한국적'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옛것을 형식적으로 재현하거나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한국문화전통이 사회의 변화가 가져오는 현대화 요구와 부딪히면서 겪게 되는 역사적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의미한다(홍가이, 1992). 따라서 한국적이라는 개념은 한 두 마디의 어휘로 정의를 시도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시대별, 지역별, 분야별 등으로 나누어 시대의 변천에 따른 각 양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객관적인 규명과 정의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김 인경, 1995).

한국적 디자인 개발의 전개과정은 민족의 역사와 시대의 변화와 함께 서서히 진행되어 왔다.

우리 나라의 경우 20세기 초 일본에 의해 서양문화가 도입되기 시작했으나 그 과정은 상당부분 왜곡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되었다. 일제의 침략기간동안 우리 전통은 단절되고 대신 식민사관이 강하게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사상은 해방 후에도 계속되어 6.25전쟁과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로 인해 부분별하게 서구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자연히 우리의 전통은 무시되고 잊혀져 갔다. 이 기간 동안 패션을 비롯한 모든 디자인 분야에서 현대화는 곧 서양화를 의미하였으며 주체성과 창조성의 표현보다는 서구의 디자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례가 빈번하였다(김 인경, 1995).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 시대적 상황이 변화하면서 우리의 것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해외 정보의 신속한 유입과 해외여행 자유화, 88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인 대회 개최는 사회를 개방화, 다양화, 국제화로 이끌었다. 대외적 환경은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다양한 민족을 인정하여 역사성과 지역성에 가치를 부여하는 포스트 모더니즘경향의 다원 문화적 관점이 우세함에 따라 각 민족은 고유한 문화적 전통의 확립을 통해 정체성을 재확인하려는 노력들을 활발하게 행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정신적 기반 위에서 한국의 각 디자인 분야에서는 80년대 중반을 기점

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고 패션계에서는 디자이너들이 민족문화의 고유성과 한국적 전통미 표현을 주제로 하여 디자인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와 급속히 진행된 수입개방으로 인해 외국 유명 패션 상품들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소비자들이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고감각화를 추구함에 따라 한국의 패션상품은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서구패션과 디자인 차별화가 필수적인 과제로 부각되었다.

포화상태인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의 패션을 세계에 알리고자 1990년대 초부터 소수의 디자이너들이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1993년부터는 파리 프레타뵈르테콜렉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등 본격적으로 한국패션의 세계시장 진입이 진행되었다. 해외 콜렉션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한국적인 미를 창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2. 선행연구고찰

현대패션에 한국복식의 전통미를 표현하려 하는 한국적 디자인 개발과 그 전개과정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조사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외형적 관점과 내면적 관점의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외형적 관점은 디자인을 구성하는 외형적 요소 즉 선, 형태, 색채, 소재, 문양, 장신구 등의 관점에서 한국복식의 전통미가 어떻게 현대패션에 표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경우이다. 먼저 금기숙(1992)은 SFA 콜렉션에 발표된 디자이너 작품을 대상으로 형태, 색채, 문양, 소재, 장신구로 나누어 전통복식이 현대적으로 활용된 모습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폭선의 사용이 두드러지고 명도대비가 중요하게 강조되고 자연무늬에 치중하며 소재로는 실크와 린넨이 주로 사용되었다고 보고하면서 전통복식은 국

제작 감각 속에서 현대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최세완과 김민자(1993)는 80년대 이후의 전통패션을 주제로 한 디자이너 작품들과 디자인 경진대회 참가디자인들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행하여 현대패션에 한국복식의 조형적 요소들이 어떻게 응용되었나를 살펴본 결과 한국복식의 형식미응용은 세부적인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형태구성에 있다고 밝혔다. 즉 구조에서는 카프탄이나 H형 윤곽선을 주로 이용하여 의복전반에 흐르는 자연스럽고 유연한 선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색채는 백색과 무채색의 조화가 두드러졌다. 소재는 곱고 정교한 소재 특히 투명한 모시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무늬는 인위적 모티프와 자연적 모티프가 비슷하게 사용되었다. 연구자들은 이 같은 경향이 디자이너들이 자연주의적 미의식에 따라 순수미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복식의 현대화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1945년에서 1994년까지의 한국패션을 시기별로 세분하여 분석한 강경희(1995)는 1945년 이후 80년대 초반까지는 양장이 우세하여 거의 한국복식이 디자인에 응용되지 않았고 80년대 중반에 아시안게임과 올림픽개최, 외국여행자유화 등 외국과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오히려 전통적인 것, 민족적인 것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아져 전통복식을 응용하는 디자인의 출현이 빈번해졌다고 밝혔다. 그 이전에는 주로 저고리와 치마를 응용하는 디자인에서 바지, 포 등 다양한 형태들이 재현되었으며 소재가 고급화되고 문양도 다양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는 또한 1991-1994년은 짧은 기간이나 SFAA 컬렉션의 탄생은 전통복식을 현대적 감각으로 해석한 많은 디자이너들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Paris 컬렉션과 같은 해외 유명컬렉션의 참가는 전통복식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통미를 상품성을 겸비한 문화상품으로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한국적 의상 디자인을 외형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과 함께 한국적 의상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내면적 요인으로서 한국인의 미적 정서와 미의식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었다. 김영자(1993)는 한국복식을 에로티시즘에 입각하여 분석하였고 강희경(1998)은 자연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김영자에 의하면 한국복식에 나타난 에로틱한 조형성은 자연에 대한 경배사상에서 비롯된 자연지향성에 미적 심성을 두고 있고 사회규범을 준수하는 도덕적 가치추구에 따라 예의를 바탕으로 한 겸손과 은밀한 내적 표현성으로 인해 절제의 미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강희경(1998)은 지형, 기후, 토양, 생태, 식생 등이 포함된 풍토의 개념이 우리의 조형의식을 형성하고 곧 '한국적 의상디자인'의 토대로 작용했다고 보았다.

한편, 김인경(1995)은 한국적 패션디자인이 어떻게 현대화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멋'지에 나타난 의상디자인을 대상으로 외형적, 내면적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외형적 요인은 형태, 색, 문양, 소재를 포함하고 내면적 요인은 디자인 방법과 이데올로기를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적 디자인의 특성은 전통적 요소의 응용이나 재현적 요소가 강해 국제주의보다는 지역주의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히고 외형성과 함께 내면적인 이데올로기를 증시해야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의상이 창출될 수 있으며 특히 작품성위주의 디자인보다는 일상복으로서의 기능성 및 대중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발표되었던 의상들을 분석하는 것과 함께 한국복식의 전통미를 살리려는 연구자들의 또 다른 시도로는 한국적 디자인의 개발과 한국적 디자인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들 수 있다. 한국적 디자인의 개발로는 전통금박문양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금박문양의 기법을 개발하거나(남숙현, 1992), 전통조각문양을 현대의상에 접목하기도 하고(김문자, 1990), 양장에 한복의 재단법을 그대로 살려 한국적인 미를 표현하려 했던 시도(문영희, 1986)들

이 이에 속한다.

한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복의 복식미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진경옥(1997)의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한국적 이미지를 느끼는 부위의 순서가 고름, 배래, 저고리 치마의 상하비례, 색동이었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부위의 순서는 고름, 배래, 색동, 상하비례, 치마폭의 주름이었다. 한국적 의복이미지가 국내외 소비자에게 어떻게 평가되는가에 관심을 갖고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경희(1997)의 연구에서는 한복은 우아한 이미지와 단순한 이미지로 주로 평가되었으며 이미지는 긍정적인데 비해 구매선호도는 낮은 편이었다. 또한 인체 선을 따르는 슬림한 실루엣에 유행이 많이 반영된 디자인군에 대하여 다른 직사각형의 실루엣보다 선호도가 높은 긍정적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적 복식미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거나 실제 디자이너들의 작품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과 평가로서 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패션에서의 한국적 디자인 개발작업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한국적 디자인 개발작업이 나갈 방향을 설정하려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국적 디자인 전개과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크다. 특히 우리의 패션 디자이너들이 세계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 1993년 이후의 패션경향이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도 조사하여 한국패션의 세계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판단의 자료를 삼아야 한다.

Paoletti(1982)는 자료에 대한 질적 분석을 주로 하는 복식사 분야의 전통적 연구방법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수량적 자료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내용분석법을 제시하여 객관적인 자료분석과 해석을 강조하였다. Tong(1984)과 안춘순(1995), 최세완과 김민자(1993) 등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내용

분석법이 자료분석과 해석에 있어 객관성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이 검증된 바 있다. 그러나 내용분석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유의할 점 가운데 하나는 분석의 틀 즉 요목(category)을 유효하게 설정해야한다는 점이다. 요목과 세부요목을 설정하는데 있어 세부요목들이 그 요목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부요목들이 현실적으로 측정가능한지, 실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인지, 여러 면에서 검토하여야 하고 그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복식의 기능을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Littrel(1989)은 개인적 구별과 통합, 사회적 응집력, 통과의식, 그리고 문화변천으로 나뉜다고 하였다. 이 중에서 문화변천(cultural change)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복식은 사회변천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여하며 세계는 점차 교류함에 따라 국부적 문화는 외부적 자극에 의하여 노출되면서 변화하기 때문에 결국 복식은 문화변천에 기여한다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Eicher와 Erekosima(1980), Eicher(1983)의 나이지리아 클라바리사람들의 의생활조사연구와 과테말라 원주민들의 의생활을 조사하였던 Moreno(1995)의 연구는 복식이 사회변천, 나아가서 문화변천에 기여한다는 Littrel의 개념을 지지해주었다. Eicher와 Erekosima는 클라바리사람들이 그 고장의 고유한 의복요소가 아닌 외래적인 요소를 그 고장의 취향으로 어떻게 변형시키며 적용하였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조사한 결과 선택(selection), 특성부여(characterization), 결합(incorporation), 변형(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네 단계를 거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문화적 확증(Cultural Authentication)의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선택의 단계에서는 외래복식의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요소를 형태만 빌어오고, 특성부여의 단계에서는 착용된 외부복식 요소의 상징적 의미가 바뀌며 결합의 단계에서는 특정집단이 자신들의 정체감을 표현하기 위해 복식의 요소를 빌어

오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변형의 단계에 이르러 창조적 조합으로 복식요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복식이 사회변천, 문화변천에 기여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패션에서 민속복식요소를 적용하여 세계화하는 과정에는 외부적인 자극, 예를 들어 세계 패션컬렉션 참가와 같은, 영향을 받아 지역적인 문화가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간직 한 채 현대사회 속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창조적인 복식문화로 전개되는 그러한 전이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3. 디자인분석

한국 현대패션에서의 한국적 디자인 개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아울러 실증적 연구로서 한국적 디자인 개발작업이 시대에 따라 전개되어온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여 그동안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발표되었던 한국적인 경향을 표현한 의상디자인들을 대상으로 내용분석하였다.

####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분석과 해석을 위해 수량적 평가를 통해 객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내용분석법을 적용하였다. 자료수집은 1986년부터 1997년까지 발표된 의상가운데 한국적인 미를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디자인들을 선정하였고 판단의 근거는 한국의상을 전공한 교수 1인과 패션디자인을 전공한 교수 1인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였으며 디자인이 게재된 잡지에 소개된 디자인에 관한 설명도 참조하였다. 아울러 선정된 자료의 대부분의 경우 디자이너 자신이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한 것으로 발표한 것들이다. 자료수집을 위해 1986년부터 1990년까지는 주로 '뎃' 잡지에서 발췌하였으며 90년 이후부터는 SFAA 컬렉션 도록, ELLE KOREA, VOGUE KOREA, COLLEZIONI, FASHION SHOW, 등 국

내외 패션잡지로부터 선정하였으며 삼성패션연구소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한 민속의상관련 정보가운데 한국편을 이용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85년(4점), 86년(0점), 87년(4점), 88년(7점), 89년(2점), 90년(9점), 91년(16점), 92년(15점), 93년(27점), 94년(42점), 95년(48점), 96년(16점), 97년(33점) 총 227점이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내용분석을 위해 설정한 요목은 년도, 선, 형태, 색채, 소재, 무늬, 디테일, 장신구 등 총 8가지 종류였고 연도를 제외한 각 요목들은 다시 세부요목으로 나뉘어졌다. 요목과 세부요목을 결정하기 위해 관련문헌을 참조하였고 선정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세부요목들이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며 그 명칭은 대표성이 높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요목가운데 디테일은 선행연구들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의복디자인에서 디자인에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본 연구에서 조사되었으며 색채에서는 의류산업계에서 색채기획을 위해 많이 이용하는 색조(Tone)와 색채조화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내용분석의 과정은 가로축에 연도를, 세로축에 디자인요소를 사용하여 교차표(crosstabulation)를 만들고 각 cell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출현빈도를 조사하였다.

#### 2) 결과분석

##### ① 선(Line)과 형태(Shape)

한국적 디자인 전개를 위해 사용된 선은 크게 곡선과 직선으로 나눌 수 있다. 곡선은 전통적으로 볼 때 주로 저고리와 바지의 배래, 당의의 밑도련, 버선의 코 등에서 나타나는 둥근 곡선을 의미했으며 현대패션에서도 저고리를 응용한 상의의 배래와 깃선, 바지의 배래, 치마를 접어 입은 모습 등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사진 1) <사진 2>. 의복 각 아이টে에 나타나는 선은 결국 전체적인 외곽선인 실루엣의 모양을 결정지었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90년대에 들어 오면 곡선에 비해 직선의 사용이 우세해지며 93년

<표 1> 선의 출현빈도

종류		연도													계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선	직선	●		●	●		●●	●●	●●	●●	●●	●●	●●	●●	●●	61 (82.4)
	곡선				●●		●	●●	●●	●		●●				13 (17.6)

\* <표 1>~<표 7>은 빈도의 차이를 쉽게 인식하기 위해 숫자대신 기호를 사용하였다.

이후에는 95년을 제외하고는 곡선의 사용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의복의 형태가 거의 직선적이며 따라서 전체적 실루엣도 직선적인 단순미를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두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국적 디자인 개발작업에서 가장 많이 응용된 형태는 치마이고 그 다음이 저고리와 포이다 <표 2>.

치마와 저고리의 한 벌 형태도 비교적 많이 이용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93년을 전후로 큰 차이가 있다. 즉 93년 이전에는 주로 저고리, 치마, 바지와 같은 중의(中衣)가 이용되었으나 93년 이후에는 이들과 함께 포, 마고자, 배자와 같은 외의(外衣)를 응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사진 3> <사진 4>.

<표 2> 형태의 출현빈도

종류		연도													계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형태	치마·저고리			■		■■		■■	■■	■		■■			12(15.0)
	저고리				■■		■			■■	■	■		■■	11(13.7)
	치마							■■	■■	■	■■	■■	■	■■	24(30.0)
	바지·저고리	■				■■	■				■■				7(8.8)
	바지						■■				■■				4(5.0)
	포									■■	■■	■■			12(15.0)
	배자										■	■	■■		7(8.8)
	마고자										■		■	■	3(3.7)

특히 포는 누빔, 털 장식 등으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실루엣이 직선적이어서 현대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적합하였다. 이같이 응용하는 의복의 형태가 다양해진 것은 한국복식의 전통미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현대패션에 응용하려는 디자이너들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 ② 색채(color)

시각디자인에 있어서 색상은 그 어느 요소보다도 차별성을 지닌 요소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색채는 음양오행설에 기초한 오방색(청, 적, 황, 백, 흑)을 중심으로 이들의 중간색인 오간색(홍, 벽, 녹, 아황, 자)이 함께 사용되었다(김지희, 1998; 김영숙, 1988; 조희래와 김영인, 1998). 색채조화의 방법으로는 색상들끼리의 대비가 강조되는 대비조화와 한두개의 색상을 사용하여 명도와 채도의 변화를 줌으로서 색상의 느낌이 깊이있게 표현되는 유사조화, 그리고 무채색끼리의 조화기법들이 다 함께 사용되었다(최세완과 김민자, 1993). 따라서 건축물의 단청, 전통적인 색동이나 각종 공예품, 그리고 조각보에 사용된 색상들을 보면 대부분 그윽하고도 풍부한 배색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색채를 조화시킬 때 색상자체의 대비효과도 있지만 그보다는 각 색상의 명도와 채도 즉 색조(tone)를 다양하게 변화시킴으로서 오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특히 한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진 조각보나 회장저고리를 보면 동일색상이라 하더라도 색조를 달리하여 배색함으로써 시각적인 흥미를 만들어내는 색조조화의 기법이 일상적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적 디자인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색채의 변화를 색조와 색채조화의 관점에서 파악해보면 <표 3>과 같다.<sup>1)</sup> 색조의 경우 전체적으로 무채색계열의

단색조(monochromatic)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이 명도가 높고 채도가 낮아 연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전달하는 옅고 가벼운 색조(pale & light)와 명도, 채도가 중간정도의 수수한 느낌의 중간색조(moderate)가 많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시기별로 보면 93년을 기점으로 점차 채도가 높은 강한 원색조의 밝고 선명한 색조(bright & vivid)와 깊고 어두운 색조(deep & dark)가 줄어들고 채도가 낮거나 흑과 백 중심의 무채색 색조의 경향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색채조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변화는 더욱 뚜렷하다. 93년 이후 여러 원색 색상들의 대조를 통해 조화를 유도하는 대비조화는 줄어들고 한 두 가지의 주조색상과 유사색을 이용하여 깊은 색채의 조화를 즐기는 유사조화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색채에서의 분석을 종합하면 한국적 디자인 개발작업이 진행될수록 단순히 여러 색상을 나열하는 색상중심의 배색기법에서 다양한 색조의 조합을 통해 풍부한 색채조화를 표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디자이너들이 색상자체의 조화위에 색조의 차이를 더하여 풍부한 배색효과를 살리려했던 한국의 전통적인 색채조화의 기법을 깊이있게 연구하여 그 아름다움을 살리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보여지며 최근의 유행색채경향이 색상조화보다는 색조조화의 경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결과라고도 보여진다.

## ③ 소재(textile)

패션에 응용된 한국적 소재로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빈도에서는 견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이 마, 노방류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시기별로 보면 93년을 중심으로 현저한 변화가 발견된다. 모시와 삼베를 비롯한 마직물과 노방류

1) 본 연구에서는 의복의 경우 배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색상에 의한 분포보다 색조와 색채조화의 관점에서 색채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하였다.



<표 3> 색채의 출현빈도

종 류		연 도														계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색조 (Tone)	단색조 (monochromatic)						◆	◆◆	◆◆◆	◆◆◆◆	◆◆◆◆	◆◆◆◆	◆◆◆	◆◆◆	34 (36.0)	
	엷고 가벼운 (Pale & Light)					◆		◆	◆◆	◆◆◆	◆◆◆	◆◆◆	◆◆	◆◆	23 (24.4)	
	밝고 선명한 (Bright & Vivid)					◆		◆◆	◆◆◆	◆	◆◆	◆◆	◆		13 (13.9)	
	깊고 어두운 (Deep & Dark)						◆	◆◆	◆◆						5 (5.4)	
	중간 (Moderate)	◆		◆	◆◆			◆			◆◆	◆◆◆	◆	◆◆	19 (20.3)	
조화	유사조화	◆		◆	◆◆	◆		◆	◆◆	◆◆	◆◆◆	◆◆◆	◆◆	◆◆	33 (56.0)	
	대비조화						◆	◆◆	◆◆	◆◆		◆	◆	◆◆	26 (44.0)	

가 주로 사용되다가 93년부터 다양한 종류의 견직물과 비닐, 레이스, 망, 가죽, 벨벳 등 특수한 소재들이 주로 이용되었다<사진 5> <사진 6> <사진 7>. 마직물과 노방의 경우 한복의 평면적 요소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점과 여름용 한서에는 이점이 있으나 착용면에 있어 여름이라는 시기적 제한성과 보관과 관리면에서 일상복으로의 기능이 떨어져 현대복으로서 사용범위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견직물은 최근 패션의 주요 경향 가운데 하나인 동양풍을 표현하는데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특수직물들은 관리와 보관, 활동성 같은 기능이 강조된 소재로 날로 사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최근의 소재유행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④ 문양(Motifs)

한국적 디자인 전개과정에 있어 문양은 초기보다는 최근에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 그리고 문양을 사용하는 부위에서 보면 전체와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서로 비슷하였다.

사용된 문양의 종류도 초기에는 뇌문, 보자기문과 같은 기하학적 무늬가 주로 사용되다가 <사진 8> 93년 이후 십장생, 수북, 길상문, 풍속화, 민화와 같은 한국 고유의 정서를 담은 민속적인 문양들이 다양하게 의복에 표현되었다<사진 9> <사진 10>.

⑤ 장식기법(디테일, Detail)

디테일은 봉제과정에서 행할 수 있는 장식을 위

<표 4> 소재의 출현빈도

종류	연도													계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면 (거즈·종이)			◆							◆◆				4 (4.8)
마 (모시·삼베)				◆◆ ◆	◆	◆	◆◆		◆◆	◆◆ ◆◆ ◆◆ ◆◆ ◆◆	◆		◆	26 (31.3)
견 (수직실크·공단·양 단·노방)							◆◆		◆◆ ◆◆ ◆◆		◆◆ ◆◆ ◆◆ ◆◆		◆◆ ◆◆	22 (26.5)
모											◆			1 (1.2)
니트						◆	◆						◆	3 (3.6)
특수소재 (비닐·레이스·망조 직·가죽·벨벳)										◆	◆◆ ◆◆	◆◆ ◆◆	◆◆	12 (14.5)
노방류 (감사·숙고사)					◆	◆◆	◆	◆◆		◆◆ ◆	◆◆ ◆◆		◆◆	15 (18.1)

<표 5> 문양의 출현빈도

종류	연도													계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사 용 부 위	전 체			●●		●●	●	●●	●●		●●	●●	●●	26(49.0)
	부 분	●		●			●● ●● ●	●	●●		●● ●● ●●	●● ●●	●● ●●	27(51.0)
무 늬 의 종 류	산수화									●	●			2(3.8)
	꽃(식물)·동물						●	●	●	●●	●● ●		●	9(17.3)
	십장생	●					●				●		●●	5(7.6)
	수복·길상			●●							●	●	●	5(9.6)
	기하학적무늬 (뇌문·마름모 ·태극·보자기)					●●	●● ●● ●	●●	●●		●	●●	●●	21(40.4)
	인물(풍속화)								●		●●	●		4(7.6)
	기타(와당·민화)								●● ●		●	●		5(9.6)
	글자											●	●	2(3.8)



<표 7> 장신구 출현빈도

종류 \ 연도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계 (%)
머리													◆	1(3.0)
모자 (족두리·맹기· 조바위·화관)				◆				◆	◆◆ ◆◆ ◆◆ ◆◆	◆◆ ◆◆ ◆◆	◆◆ ◆◆ ◆	◆		21(61.8)
주머니									◆		◆			2(5.8)
토시										◆			◆	2(5.8)
가방											◆			1(3.0)
벨트											◆		◆	2(5.8)
신발									◆					1(3.0)
노리개 (목거리 포함)									◆◆	◆◆				4(11.7)

<표 8> 한국적 디자인 개발과정에 적용된 디자인요소의 연도별 변화추이

구분 \ 연도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계(%)
선	1	0	1	3	0	3	5	8	11	17	18	3	4	74 (15.6)
형태	1	0	1	3	4	4	5	5	10	22	17	3	6	81 (17.1)
소재	0	0	1	3	2	4	6	2	9	22	20	5	10	84 (17.7)
색상	1	0	1	2	2	0	11	9	13	17	13	7	11	87 (18.3)
문양	1	0	0	2	0	2	7	4	8	3	10	7	9	53 (11.2)
장신구	0	0	0	1	0	0	0	1	11	9	8	1	3	34 (7.1)
디테일	0	0	0	2	0	2	9	7	9	11	14	2	6	62 (13.0)
계	4	0	4	16	8	15	43	36	71	101	100	28	49	47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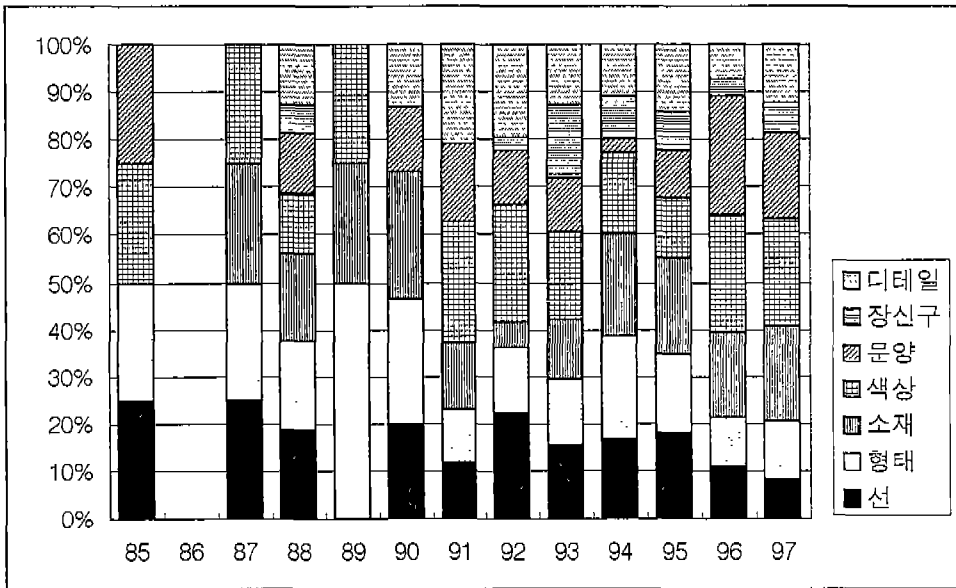
지 다양한 디자인요소들을 이용하여 한국적인 정취를 표현하고자 했다. 그리고 80년대와 90년까지는 형태와 선을 응용하는 비율이 높다가 점차 소재, 색상, 문양, 디테일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3) 요약 및 논의

현대패션에 한국적 전통미를 표현하고자 했던

1986년~1997년까지의 디자인들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한 결과 패션에서의 한국적 디자인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을 알 수 있었다.

한국적 디자인 개발 초기에는 의복에서 곡선을 주로 사용하여 복잡한 실루엣을 표현하다가 후기로 갈수록 직선을 주로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직선적이고 단순한 실루엣을 이루는 쪽으로 변화되었다. 색



<그림 1> 연도별 디자인요소의 연도별 변화추이

채에 있어서는 색상조화에서 색조조화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화하였다. 초기에는 강렬한 원색을 중심으로 색상들간의 대비조화를 주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색상의 종류는 제한적이나 다양한 색조들끼리의 조화를 주로 하여 자연스럽게 깊은 색감을 표현하는 쪽으로 변화되었는데 이 것은 현란한 색상대비보다는 1-2종류의 색상을 선택하여 색조간의 조화를 즐기는 현대패션의 최근 색채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형태에 있어서 보면 초기에는 한복의 여러 의복 종류 가운데 치마, 저고리, 바지 형태를 주로 응용하였으나 점차 범위를 넓혀 또, 마고자, 배자 등 다양한 종류를 현대적 감각으로 응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졌다. 소재사용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삼베, 모시, 노방류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후기로 갈수록 다양화하여 여러 종류의 견, 모직, 벨벳, 비닐, 레이스, 가죽, 망 등 현대패션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직물들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장식기법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선처리, 금,은박 외에 별로 사용되지 않다가 90년대에 들어와 누비, 엮기, 자수, 조각보, 흥배

등 그 종류가 다양해졌다.

무늬의 경우 초기의 기하문양 일색에서 벗어나 십장생, 수복, 길상, 동, 식물 무늬, 한자, 풍속화, 민화 등 다양한 종류의 한국적 정서를 담은 무늬들의 의복에 표현하려했다. 특히 장신구는 의복의미를 완성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갓, 조바위, 화관, 아얌, 족두리, 땡기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모자와 머리장식, 토시, 붓짐, 주머니, 노리개 등 한국 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해오던 고유의 장신구를 패션 소품으로 활용한 모습에서 패션에서의 한국화 작업이 점차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디자인요소의 관점에서 시기별로 분석해보면 한국 현대패션에서의 한국적 디자인 전개과정은 전체적으로 실루엣과 색채가 단순해진다는 점에서 단순화, 그리고 형태와 소재, 장식기법이 다양해진다는 점에서 다양화, 무늬와 장신구가 일상 서민들의 한국적 정서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민속화라는 3가지 주요한 경향으로 대표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단순화, 다양화, 민속화의 경향은 현대 패션의 세계적인 유행경향의 흐름과 거의 일치한다. 단

순화는 미니멀리즘의 유행경향을 반영하고 있고, 다양화와 민속화는 80년대 중반 이후 세계 패션을 주도해온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이기도 하다(박명희, 1992). 이처럼 한국적 디자인 개발의 전개과정은 처음에는 단순히 전통복식의 요소를 그대로 디자인에 적용하는 양식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현대패션의 유행경향을 받아들여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초기에는 서서히 진행되다가 우리 나라 디자이너들이 본격적으로 해외 컬렉션에 참가하기 시작한 1993년을 기점으로 두드러졌다. 디자인 개발과정에서의 이와 같은 변화는 디자인의 토양이 되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외국패션의 최신 정보가 신속히 입수되는 산업환경과, 소비자들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점차 기능을 중시하고 개인의 개성과 민속풍 문화를 선호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디자이너들도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디자인에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패션정보의 국제화와 외국컬렉션 참가는 우리 나라 패션과 미의식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도 하지만 외국패션의 본질과 그들의 미의식을 우리가 받아들여 우리 미의식에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창조적 조형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제공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 예를 들어 자연스럽고 단순한 실루엣을 선호하게 된 것이나, 여러 색상의 대비를 강조한 색상조화에서 색의 종류보다 색조의 차이를 통해 배색효과를 살리려하는 색조조화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화한 것, 그리고 다양한 소재의 응용, 무엇보다도 모자, 머리장식, 주머니, 장갑 같은 패션소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모습들은 전통과 현대, 또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과정에서 현대를 대표하는 서양의 특징적 요소들이 채택되고 전통과의 결합을 거쳐 새로운 창조적 조형으로 변형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Littrel이 제시한 것처럼 복식을 통해 시대간, 지역간의 문화적 교류가 일어남을 의

미하며 Eicher와 Erekosima가 구체화한 문화적 확장의 4단계가 한국의 현대패션에서 전통복식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세계화시키려고 하는 과정의 경우에도 성립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III. 세계화를 위한 제안

지금까지의 한국 현대패션에서 전개되어온 한국적 디자인 개발작업을 종합해보면 현대패션의 경향과 한국전통복식의 아름다움을 효과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해 디자인 개발에 참여한 패션디자이너들이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현대유행경향을 자신들의 디자인작업에 반영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한 디자이너에 의해서 색상이나 형태의 응용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한국적 디자인 개발작업이 한층 발전하였다. 그러나 한국적 디자인 개발작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한국패션이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도 발견된다. 디자인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무엇보다도 그 동안 패션에 표현된 한국적 요소는 대다수 외적인 측면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한국적 디자인 개발을 단순히 전통복식의 몇 가지 외적인 요소를 현대스타일에 적용시키려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이것은 결국 디자인에 있어 한국적 요소라는 정보에 불과하여 대량만 의복일 뿐 한국의 박물관 홍보자료나 그 밖의 시각자료에서 볼 수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국내인 뿐 아니라 외국인도 그 응용이 가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창의적인 한국적 디자인을 개발하고 이를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디자인에서 독자적인 한국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과 함께 의복의 상품성을 높이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파리시장에 한복의 아름다움과 신비한 이미지를 소개하였던 디자이너 이영희씨도 세계시장에서 한국적 디자인이 상품으로서 정착하려면 먼저 독창적인 한국의 미나 정서를 담아야하고 다음

서양복과 코디네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디자인에 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21세기에 전개될 한국적 디자인의 세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화를 위한 제안에 있어 보다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한국적 디자인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 진출한 경험이 있는 디자이너 이영희씨를 면접하였고<sup>2)</sup> 트렌드(trend)예측을 주로 하는 패션정보지(VIEW, VIEWPOINT, TRENDS, MODAIN), 그리고 세계 주요도시의 거리패션을 촬영한 STREET 잡지를 분석하였다.

## 1. 독자적인 한국적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

1) 디자이너들은 한국 전통의상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한다.

디자인분석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자이너들은 초기에 한국 복식의 형태를 치마, 저고리, 바지라는 중의(中衣)류에 제한시켜 주로 표현하다가 최근에는 포(袍), 배자, 마고자와 같은 다양한 외의(外衣)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 옷 뿐 아니라 조바위, 아얌, 갓 과 같은 다양한 쓰개류와 토시, 주머니, 붓집 등 한국적인 서정을 연출하는 소품들을 사용하고 매듭, 조각보, 누비, 염기와 같은 다양한 장식기법들을 활용함으로써 전통복식요소의 응용범위를 넓혀 나갔다. 따라서 앞으로도 기존의 알려졌던 의복종류 외에도 궁중복식을 비롯한 서민복, 선비복, 군복, 무용복, 승복 등 다양한 의복 종류에 대하여 깊이있게 연구를 하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디자인에 활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오던 다양한 장식기법들과 장신구들도 현대화하여 디자인에 적용한다면 새로운 스타일과 이미지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새롭게 발굴되는 자료 즉 출토복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출토복식은 특정 상류층의 의복이 아닌 당시 일반복식으로서 보통사람들의 정서를 담고있는 것으로 보다 한국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또한 출토복식의 특징은 다양한 종류의 의복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형태응용의 측면에서도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2) 의복의 외형 뿐 아니라 내부적인 비례감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비례(proportion)는 형태 뿐 만 아니라 색상의 배치, 무늬의 크기나 위치에도 영향을 미치며 색상이 사용된 비례감각에 따라 민중성이 차별화 되는 중요한 디자인 감각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색상, 형태의 디자인요소를 단순히 외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 이외에 의복내 각 구성부위간에 지니고 있는 비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적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했던 디자이너들이 초기에는 주로 형태면에서 단순히 저고리의 배래선, 치마의 주름, 당코의 선 등을 응용하다가 발전하여 소재, 색상, 무늬 등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리려 노력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복의 외형보다는 착장 상태의 전체적 실루엣을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인체와 의복사이의 비례감각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데 같은 종류의 의복이리 하더라도 그 의복을 어떤 체격의 사람이 얼마만큼의 여유를 가지고 입었는가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우리 조상들이 의복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멋의 진수가 어느 정도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상의와 하의의 비례, 상의 안에서 옷깃의 크기 및 소매의 길이와 크기 등 의복 각 부위의 구성비례는 우리만의 고유한 감각으로 현대복에서 응용하면 한국적인 정취를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색상의 이해에 있어서도 사용된 색상의 종류 뿐 아니라 색채구성비율이 어떠한 지에

2) 같은 시기에 파리 컬렉션에 함께 진출하였던 이신우씨와 진태욱씨는 디자이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면접이 여의치가 않았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같은 색상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색상구성비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삼국시대 고구려 벽화에 나타난 의복의 색상으로 검정과 백색 및 붉은 색이 응용되었다면 이들 3가지 색상은 한국적인 색만은 아닐 것으로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에서도 사용된 색상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사용된 색상이 중요하기보다는 그 색상들이 어떠한 색조로 그리고 어떠한 비례감각으로 응용되었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이때 의복 뿐 아니라 생활속에서 발견되는 모든 사물과 공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고유한 색채감과 구성비를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전통의복의 착장법 및 구성방법을 연구하여 효과적으로 디자인에 적용해야 한다.

옷을 구성하는 방식과 인체위에 착장하는 방식은 의복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앞에서 행한 디자인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디자이너들이 한국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전통적인 착장방법을 적용하여 배자, 마고자, 포 등 다양한 의의류를 겹쳐입는 디자인을 연출하였다. 여기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여유있고 우아한 느낌을 전달받을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동양과 서양은 의복의 구성방법이 다르고 따라서 착장방식도 달랐다. 의복을 인체에 맞추어 입체적으로 재단하는 서양과는 달리 직선적인 재단을 주로 하는 동양의 착장방법은 같은 형태의 의복을 여러번 겹쳐입는 방식이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같은 겹쳐입기 방식이라 하더라도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는 똑같은 형태의 의복을 색상과 재질에 따라 여러겹 겹쳐 입지만 한국의 겹쳐 입기는 의복의 역할에 따라 종류를 달리 하여 착용한다. 가장 겉에 착용하는 의복은 계절에 관계없이 홑겹으로 구성하고 그 안에 입는 옷은 계절에 따라 방한용과 방서용의 의복의 구성을 달리하여 겹쳐 착용한다. 따라서 포나 속옷에 다양한

의복의 종류가 공존하고 사용되는 재료도 다양하다. 그리고 이처럼 다양한 착장 순서를 배려하여 의복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같은 형태라 하더라도 조금씩 구성방법이 다르고 여유분이 달라져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의복은 인체에 착장됨으로서 그 생명력이 불어넣어지기 때문에 그림이나 사진에 나타나는 외형의 형태나 색상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의복을 만들어 봄으로서 발달과정이나 정신들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다. 이는 오랜 기간 한복만을 제작하던 한 디자이너가 한국적인 이미지를 현대복에 조화시켰을 때 오랜기간동안 현대복을 제작하면서 그 위에 한국적인 미를 표현하려했던 다른 디자이너들보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한국적인 정서를 유발시킬 수 있었던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몸에 맞는 옷에 익숙하던 서구인들에게 전혀 다른 착장방식 즉 인체의 구조를 무시하여 헐렁하게 입거나 각각 다른 형식의 의복들을 겹쳐입는 새로운 착장방식을 제시하여 시대의 유행경향을 만들어내었던 일본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게(Issay Miyake)나 레이 가와쿠보(Ray Kawakubo) 등의 경우를 보더라도 착장방식이나 구성방법에 대한 이해는 디자인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 2. 의복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1) 한국고유의 전통적 이미지와 패션트렌드와의 미묘한 조화가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한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패션 디자이너들이 외국의 유명 컬렉션에 참가하기 시작한 1993년을 중심으로 한국적 디자인의 전개과정은 뚜렷한 변화를 보였고 변화의 방향은 단순화, 다양화, 민속화로 요약될 수 있었다. 이들 3가지 경향은 80년대 중반 이후의 세계적인 패션트렌드와 일치하여 디자이너들이 한국적인 디자인을 전개하는데 있어



패션경향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만약 디자이너들이 현대패션에서 한국적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80년대 후반에 행했던 것과 같이 등근 소매, 당코깃 모양, 알록달록한 원색 조화의 조각보, 풍성한 주름치마와 같은 고정화된 유형의 전통복식미를 강조하려 했다면 이는 지역적인 패션으로만 국한되었을 것이다.

최근에 행한 한국적 의복이미지에 대한 연구(이경희, 1997)에서 국내의 응답자들은 직사각형의 실루엣을 가진 디자인군에 대하여는 단순하고 우아한 멋은 있으나 현대생활에서 수용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점이 있다고 인식하여 낮은 구매의도를 보였다. 그러나 인체 선을 따르는 슬림한 형태의 실루엣에 유행이 반영된 디자인군에 대하여는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그런가 하면, 민속풍(ethnic)은 90년대 패션트렌드를 구성해온 주요한 주제가운데 하나로서 앞으로도 여전히 영향력 있는 패션으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들은 더 이상 박제화된 민속풍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감각의 민속풍을 원하고 있다고 패션정보지들은 보고하고 있다(VIEW, 1999; MODAIN, 1998, 1999). 그리고 파리, 런던, 밀라노, 뉴욕, 동경 등 세계패션의 유행발산지 거리패션을 보면 민속풍을 현대적으로 변형시킨 스타일과 민속풍의 옷을 캐주얼한 셔츠나 바지들과 조화시켜 독창적인 스타일로 착용하는 것이 젊은이들 사이에 하나의 패션트렌드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STREET, 1992-1999) 이러한 조사결과들은 지역적 패션이 국제화하려면 지역 고유의 독특한 미의식과 세계를 공통적으로 지배하는 미의식 즉 유행경향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한국적 디자인 개발작업이 세계화를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을 시사해준다 하겠다. 특히 패션제품의 주요고객층인 유행지향적인 젊은 소비자들에게 소구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세계적인 패션 트렌드인 크로스코디네이션(cross-coordination)이나 젠더리스(genderless)같은

실용성 있는 테마가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지역적 정서와 세계패션의 경향을 잘 조화시켜 세계화에 성공한 디자이너들의 예는 상당히 많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 의상을 크로스코디네이션 개념으로 현대화시킨 노텐(Dris Van Noten)이나 서부개척시대의 미국의상과 인디언들의 문화에 디자인의 기반을 두고 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유머러스하게 전개시키는 수이(Anna Sui), 중세 유럽 귀족 분위기나 아프리카 토착의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제시하였던 지글리(Rorneo Gigly) 등 많은 디자이너들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지역적인 의상문화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사회에서 착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패션트렌드를 적절히 수용하여 잘 조화시키고 이로 인해 차별화와 상품적 가치를 높일 수 있었던 점이다.

2) 의복의 사용자와 용도를 분명히 하고 디자인에 임해야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한국적 의상디자이너들을 보면 대다수가 소수의 특수한 집단과 특수한 용도를 연상케하여 효용성이 떨어지는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세계인들은 의복의 취향과 사용면에서 갈수록 세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의류산업체에서는 시장을 세분화하여 정확한 용도를 가진 기능적인 의복들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적 디자인이 세계시장에서 상품으로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의복의 사용자와 용도를 분명히 하여 사용자와 용도의 특성을 고려한 기능성을 바탕에 두고 심미성을 고려하여야할 것이다. 특히 예복 위주의 디자인에서 범위를 넓혀 캐주얼한 일상복과 남성복, 노인복, 혼례복, 아동복 등 다양한 시장에서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다.

3) 소비자들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도 함께 변화해간다. 소비자들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곧 패션트렌드의 변화를 수반하며 의복의 용도를 결정짓는다. 앞서 행한 디자인분석에서 90년대 이후 직선의 사용이 증가하고 비닐, 레이스, 망, 가죽, 니트 등 소재가 다양해진 사실은 소비자들이 의복에서 기능성을 중요시함을 반영한다. 이제 소비자들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연구하는 여러 보고서들은 앞으로 소비자들은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보이고(View, 1999) 환경친화적인 자연풍(natural)을 선호하지만 이와 함께 기능성에 우선 가치를 둘 것이며 전(前)세대에 비해 다원(多元)적 문화양식을 거부감없이 받아들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VIEWPOINT, 1999: TRENDS, 1999).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들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상품을 차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를 차별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차별화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이 어떻게 변화하며 이에 따라 추구하는 상품 가치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분석하여 소재나 색상, 스타일 개발 등 각 디자인 작업 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복식문화에 대한 깊이있는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 생활에서 요구되는 의복의 기능성과 유행성(fashionability)을 적절히 조화시킨다면 다른 복식문화와 구별되는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세계인들의 공감도 얻을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현대패션에서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나타낼 수 있는 한국적 디자인의 개발은 문화전수의 차원이나 상품차별화의 차원에서 매우 의의가 있는 일이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복식요소의 단순한 채택보다는 그 전통에 배어있는 본질적 아름다움을 현대사회의 변화하는 환경과 잘 조화시켜 상대적이고 역사적인 개념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의한 구체적인 디자인 모형 개

발은 후속연구를 통해 계속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경희, 한국복식형태의 현대화과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강희경, 의상디자인에 표현된 자연주의에 관한 연구 -1990년 이후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복식 38호, 1998.
- 굼기숙, 한국 전통복식미의 현대적 활용, 복식 19호, 1992.
- 김문자, 조각보의 조형성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김민자, 한국패션의 고유 디자인에 대한 발전적 모색, 산업디자인, 110, 26, 1990.
- 김영숙, 전통복식을 통해 본 색채의식, 전통염색 공예, 서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P122-124.
- 김인경,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1980년대 이후 한국패션디자이너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권 3호, 1995.
- 김정희 · 이경희, 한국적 의복이미지의 구성요인과 디자인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21권 3호, pp.589~599, 1997
- 김지희, 우리의 색 재현을 위한 전통염색, 전통염색공예, 서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P.118-119.
- 남숙현, 굼박문양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문영희, 한국전통복식의 선을 이용한 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박명희,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1.
- 안춘순, A Quantitative Approach to the Studies in Historic Costume Using the Documentary Evidence, 한국의류학회지, 20권 1호, pp76~86, 1996.
- 이경희, 한국적 의복이미지와 디자인과의 관계 -한

국과 미국의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1권 2호, 1997.

- 이미혜, 현대 여성 복식디자인에 나타난 한국전통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임영자, 현대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동양의 미의식 연구, 복식 30호, 1996.
- 조희래 · 김영인, 색등을 응용한 한국적 디자인의 개념(1), 한국의류학회지, 20권 5호, 1996.
- 진경옥, 한복의 복식미에 대한 인지도 조사연구 -1980년대 이후 한복의 형태, 소재, 문양을 중심으로-, 복식 31호, pp101~117, 1997.
- 최세완 · 김민자, 현대패션에 표현된 한국복식의 전통미 -1980년대 이후 한국 디자이너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7권 1호, 1993.
- 홍가이, 현대미술, 문화비평. 서울: 미진사, pp. 222-225, 1992.
- Eicher, J., Identity as Symbolized by West African and Imported Textiles, NY: Wenner Gren Foundation, 1983
- Eicher, J. & T. V. Erekosima, Distinguishing non-western dress from Western Dress: The concept of cultural authentication, Association of College Professors of Textiles and Clothing, Washington, D. C. 1980 Quoted in Michelman S. & Eicher, F. Dress and Gender in Kalabari

Women's Societi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3(2), pp121~130, 1995.

- Littrel, M. A., "Social and Cultural Analysis of Clothing : Current Research and Methodological Direction", 한국의류학회 1989년도 추계학술세미나 초청강연, pp. 4~28, 1989.
- Mareno, J. Socio-cultural Influences upon Aesthetic Preferences of Indigenous Guatemalan Women. in Fiore A. & Kimle, P(1998), Understanding Aesthetics, Fairchild, 1995.
- Paoletti, Jo B. "Content Analysis: Its Application to the Study of the History of Costume",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1, No. 1. pp14~17, 1982
- STREET, 1992-1999,
- TRENDS, pp.39-40, 62-63, 1999
- Tong, Yung Sen, "Chinese Influence on Selected Designers During the Decades, 1961~1980, Master's thesis", Ohio State University, 1984, 진경옥, '한국의 복식미에 대한 인지도 조사 연구' 복식 31호, pp101~117에서 재인용.
- VIEW, "The Rise of The Individual" No. 46, pp.39-40, 1999.
- VIEWPOINT, "Tomorrow's World", No. 5, pp.12-21, 1999

선 / 형태



소재



[사진5] 설윤형  
FASHION TODAY  
'93.1 P.145



[사진6] 진태옥  
SFAA '96 S/S P.8



[사진7] 진태옥  
SFAA '96 S/S 9.11

무늬



[사진8] 설윤형  
SFAA '91.92



[사진9] 이신우  
FASHION TODAY '93. 1



[사진10] 오은환  
SFAA '97 S/S

장식



[사진11] 설윤형  
FASHION TODAY '94. 5



[사진12] 설윤형  
SFAA '97 A/W

장신구



[사진13] 설윤형  
SFAA '95 A/W



[사진14] 이영희  
VOGUE '97. 6